

UMC, 동성애 내홍 속 총회 개최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4월 2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시작된 가운데 개회예배를 드렸다. UM News

**전·현직 감독들, 일치 촉구
 동성애 관련 장정 개정 여부
 주목, 7,000개가 넘는 교회
 동성애 문제로 UMC 탈퇴**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애에 대한 논란으로 수천 개의 교회가 교단을 떠난 후 개최한 총회에서 단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고 있는 UMC 총회에서 전·현직 감독들은 성윤리에 대한 수십 년간의 내부 논쟁을 인정하고 교단의 일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UMC는 거의 50년 동안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보여 왔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안겨 줬다”며 “우리는 UMC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UMC가 새로운 형태의 연결 교회, 글로벌한 본질에 초점을 맞춘 총회,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 상황적으로 맞는 형태

로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감독들은 “최근 몇 년간 동성애에 대한 분열로 인해 7,000개가 넘는 교회가 UMC를 떠났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의 UMC이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어려움에도 여러분의 감독으로서 우리는 전체 무리들의 목자가 돼, 그리스도의 몸체에 대한 이해와 화해와 일치 목표에 대한 이해와 화해와 일치 목표를 향한 리더십을 제공하며, 기독교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몇 년 동안 UMC는 동성결합 축복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금지하는 장정의 내용을 변경할지 여부를 두고 분열적인 논쟁을 벌여왔다. 과거 총회에서 장정을 바꾸려는 노력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 진보주의자들은 종종 이를 따르거나 시행하기를 거부해왔다. 이로 인해 2019년 총회 특별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장정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가결했다. 이는 교회들이 토론을 통해 UMC를 떠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임시

조치였다.

UM뉴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500개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최근 형성된 세계감리교회(GMC)에 가입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상당수의 보수주의자들이 UMC를 떠났기에, 많은 사람들은 올해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마침내 장정을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UMC 필리핀 해외지역총회 감독대학은 성명을 내고 웨슬리언연합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와 세계감리교회(GMC)와 같은 보수적인 단체들에 대해 “UMC가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교리와 믿음을 바꾸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적인 총회가 다가오며 따라, 우리는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화합·공정·신교적 맥락에 대한 존중의 가치가 고양 및 확인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4면에서 계속

개신교인 44% 아프리카 거주 기독교의 세계적 중심 이동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가나 아크라에서 세계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의 글로벌 모임이 열렸다. ©Global Christian Forum

세계 기독교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초점을 둔 세계기독교포럼(GCF)의 네 번째 모임이 가나 아크라에서 열렸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세계 주요 기독교 전통을 대표하는 60개국 24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기조연설자 중 한 사람인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선교사 및 세계기독교학자인 지나 줄로(Gina Zurlo) 박사는 아프리카를 주목 받고 있는 지역으로 강조했다. 지난 150년 동안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검토하면서 그는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인의 44%가 아프리카에 거주한다는 놀라운 통계를 주목했다.

최근 전 세계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난 세기 동안 점진적이면서도 중요한 변화가 뚜렷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900년에는 기독교인의 82%가 북반구 출신이었다.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을 포함한 남반구의 18%와 대조를 이루었다. 현재 인구통계는 극적으로 역전되어 북반구에는 기독교인이 33%, 남반구에는 67%가 되었다.

고든-콘웰 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공동 소장인 줄로 박사는 종교 인구 통계, 세계 기독교, 종교 사회학 및 여성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 그는 2050년까지 기독교인 77% 중 압도적 다수가 남반구 출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숫자에는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복음주의, 오순절교회, 은사주의 등 기독교의 모든 교파가 포함된다.

줄로 박사는 “복음주의는 18세기에 등장한 개신교 내 갱신운동으로 20세기에는 남반구로 이동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자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복음주의자의 5분의 4는 유색인종이다”라고 설명했다.

20세기 초 시작된 오순절 은사 운동은 고전 오순절주의, 가톨릭 은사 운동 및 기타 은사 운동 내 다양한 표현을 포괄하는 남반구 신앙의 특징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기독교의 다음 중심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지적하면서 “기독교가 퍼지는 곳마다, 20세기에는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도 함께 퍼졌다.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오순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셀비의 평가상가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구나힐스교회, “장학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미래선교”

내일의 지도자 양성 및 후원 지역사회와 선교지 학생들 지원

라구나힐스교회(림학춘) 장학회(회장 최병철)에서 2024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본인 또는 가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며,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금년도에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

라구나힐스교회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27,8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남가주 학생 뿐만 아니라 선교지인 몽골의 청소년, 대학생, 신학생들에게도 별도로 전달하고 있다. 2024년에도 총 10명의 장학생

선발을 기준으로 선택하되 장학심사위원회에서 인터뷰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택된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서 마감은 6월 21일까지이며, 1차 서류에 통과하면 2차 인터뷰를 거쳐서 선발한다. 장학지원서는 라구나힐스교회 홈페이지(www.lagunachurch.com)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메일 lagunakumc@gmail.com, 주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한편, 장학기금모금을 위한 제12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5월 20



2023년 장학수여식에서는 1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라구나힐스교회

일(월) 오전 10시에 Dove Canyon Golf Club에서 열린다. 신청마감은 4월 30일까지이며 참가나 후원

은 교회로 연락하면 된다. 후원금은 pay to the order of Laguna Hills Church 메모: 장학후원

주소: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LHKUMC Board of Scholarship) 김민선 기자

“우리는 호흡이 있는, 옷 잘 차려입은 흙덩어리”



4월 21일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디모데성경연구원 이재학 목사를 초청해 <질그릇 인생의 승리> 주제로 주일예배를 드렸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지난 주일 4월 21일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이재학 목사(디모데성경연구원 대표)를 초청해 <질그릇 인생의 승리>를 주제로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역설적 가르침을 대조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세상은 손해 보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한다. 소유를 많이 쌓으라고 하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 ‘섬기는 것이 이끄는 것이다.’ 등등 많은 역설이 있다.”

“오늘 살펴볼 역설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낙심과 실패를 극복하면서 험난하고 녹록지 않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게 되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강해도 죽는다. 무하마드 알리도 죽었고 이소룡도 죽었다. 아무리 안 늙겠다 버티고 우기고 보약을 먹고 화장을 칠게 해도 늙게 돼 있다. 염색과 화장, 변장을 해서 잠시 젊어 보일 순 있는데 절대로 젊어질 수는 없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늙어갈 뿐이다. 우리의 길은 쇠해지고 낡아 간다.”

그는 고후 4:7절을 언급한 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하고 깨지기 쉽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건 아주 한계가 많은 연약한 인간이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 왔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흙덩어리, 그저 옷을 잘 차려입은 흙덩어리, 화장을 잘하고 에어쿠션을 잘 바른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며, “질그릇은 담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우리가 짜장면, 짬뽕, 냉면, 갈비

탕을 먹을 때 그릇보다 내용물을 본다. 크리스마스나 연말 보너스나 세 배돈을 받을 때 봉투 안의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넣어 주셨다.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해서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바울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질그릇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즉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따라서 자기 능력을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며 연약함 속의 능력에 대해 증거했다.

이재학 목사는 그는 두번째 승리의 비결로, “현재의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꼽았다.

“부모들이 고난을 겪고 희생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출산에 고통을 겪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도대체 끝날 것 같지 않으며 질병에 걸리고, 가까운 가족들이 죽고, 자녀들의 아픔과 갈등을 보며, 이러한 애통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고통은 다 일시적이고 다 지나간다.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그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승리할 수 있다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

중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김종철 감독 초청 <이스라엘, 이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제로 이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OC목사회

회복, 용사, 제3의성전 등의 영화로 영향을 끼친 김종철 감독 초청 <이스라엘 중동 제대로 알기 특강>이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에서 개최된다.

브래드TV 선교회 대표이자 이스라엘 전문가인 김 감독은 <이스라엘, 이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제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중동 분쟁의 원인 및

배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까, 거짓말의 종교 이슬람과 하마스, 하나님의 시간표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번 특강은 오렌지카운티목사회가 주최하고 AHAVAT ELOHIM 이스라엘 기도회와 주관, 효사랑선교회가 협찬한다.

특강이 열리는 갈보리선교교회는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에 위치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얻지 못한다. 진리는 항상 진리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절망, 모든 고통, 모든 마음 아픈 일, 모든 거절, 모든 오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악, 우리를 향한 모든 미움, 우리가 견디는 모든 중상 모략,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모든 혼돈, 모든 의심, 모든 질병, 모든 깨진 꿈, 다지

나간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위기도 다 지나간다. 우리의 잠시 환난은 더 큰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명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주디 한 기자

제 8542차

두란노아버지학교 LA 113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

일시

첫째날 5월 17일(금) 오후 7시 ~ 오후 10시 30분

둘째날 5월 18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셋째날 5월 19일(일) 오후 4시 ~ 오후 9시

식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장소

LA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등록비 및 온라인 접수

\$150 Payable to Father School

Zelle fatherschoolamericas@gmail.com

온라인 접수 bit.ly/fatherschool_LA113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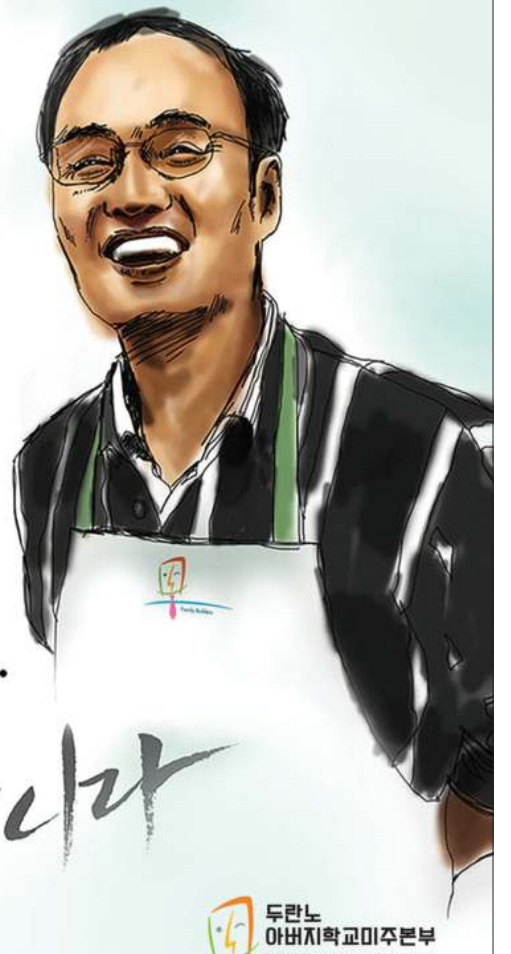
미주본부 info@fatherschool.org

운영위원장 김기섭 206 334 2008

충현선교교회 818 549 9191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황영행이다



발달 장애인 위한 사랑의 마당 축제

'사랑의 마당 축제'가 오는 5월 4일(토), 'Buena 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개최된다.

2000년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마당) 축제'가 39회를 맞는다. 사랑의(마당) 축제는 매년 5월, 12월, 2회에 걸쳐 남가주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해 진행하는 행사로 발달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이다.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하고, 장애사역 교회나 단체의 홍보, 정보교환, 경품추첨, 댄스파티 등 신나는 놀이들이 제공된다.

올해는 씨드교회(Seed Church)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GBC미주복음방송과 Caravan Canopy, Hanmi Bank, 오버플로잉교회(The Overflow-



사랑의 마당 축제가 5월 4일(토) 부에나파크 주니어 하이 스쿨에서 개최된다. ©Seedchurch

ing Church), OC한인라이온스클럽, Royal Business Bank, 세프반찬에서 특별 후원한다.

또한 약 20개의 남가주 교회 장에 부서와 15개의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한인 지도자들, UMC 총회 앞두고 '공동목회서신' 발표



202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 개최 예배. ©Mike DuBose, umnews.org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 총회(General Conference)가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 교단 내 한인 지도자들이 최근 '공동목회서신'을 발표했다.

이 서신은 한인선교구 선교 감리사인 안명훈 목사(동북부), 이훈경 목사(중북부), 홍삼열 목사(서부), 김광영 목사(중남부)를 비롯해,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이창민 목사 명의로 발표됐다. 이들은 서신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연합감리교회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사회생활원칙 개정안(Revised Social Principles), 그리고 동성애 관련 제한적 언어를 없애자는 안(Removal of restrictive language related to homosexuality)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바라보면서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진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갖는 질문이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연합감리교단에 남아 현재의 전통적 신앙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언급된 '전통적 신앙'이란 주로 동성애 등 성(性)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것이다. UMC는 수년간 이 문제로 갈등해 왔는데, 교단이 친동성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다수 교회들이 지난 약 4년 간 교단을 탈퇴하기까지 했다. 그 수가 미국 내 UMC 교회의 약 4분의 1인 7,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MC 내 한인들은 동성애와 관련해 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인 지도자들은 서신에서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인 장학순 목사, 동북부 지역 한인 선교구를 섬기는 안명훈 선교감리사,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이창민 목사가 지난 2

월 9일에 연합감리교회 감독들로 구성된 총감독회 회장인 토마스 비커튼 감독을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만남에서 토마스 비커튼 감독회장은 연합감리교회의 총감독회를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아래와 같다.

- ① 연합감리교회는 인간의 성 문제와 관련해 전통적 신앙관을 가진 한인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
- ② 연합감리교회는 목회자 파송과 관련해 한인교회의 신앙적 기준을 존중한다.
- ③ 결혼예식 집례와 장소 사용에 있어 개체 교회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한다.

이들은 "이것은 비커튼 감독 개인의 약속만이 아니라 연합감리교단의 감독과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온 약속"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합감리교회 감독들과 지도자들이 한인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단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기도할 때"라며 "이번 총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교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유익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UMC 내 동성애 이슈는 이 교단 한인교회들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교단 탈퇴 여부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 UMC가 친동성애로 확실히 기운다면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가운데, 교단에 남아 전통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며 교단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UMC의 이번 총회는 지난 2016년 이후 약 8년 만에 열리는 정기총회다. 김진영 기자

가정의 달 맞이 무료 가족 사진 촬영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특별 행사

5월 가정의 달 특별 행사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센터메디컬그룹과 특별한 추억을 사진에 담아가세요!

행사 일시: 5월 7, 10, 14, 17일 (10am - 11am)
5월 21, 24, 28, 31일 (3pm - 4pm)

행사 장소: 소스몰 센터메디컬그룹 사무실 (6-Flex가 위치한 건물 6층에 있음-다.)
6940 Beach Blvd D-611, Buena Park, CA 90621

행사 대상: 만 64세 이상의 시니어라면 누구나!

사진 종류: 가족사진, 단체사진, 우유사진, 2024년 기념사진 (만약 가능한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아가드립니다.)

센터메디컬 그룹이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를 기획했다. ©센터메디컬

가정의 달을 맞아 센터메디컬그룹에서는 가족사진과 리마인드 웨딩 등을 찍을 수 있는 '무료 사진 촬영'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디지털 시대에 사라져가는 사진관 컨셉으로 시니어들의 특별한 추억을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가 아

니어도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우정 촬영, 독사진도 촬영도 제공한다.

촬영된 사진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아 제공한다. 신청은 전화로 해당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714-904-1701).

장소: 소스몰 건물 6층 (6940 Beach Blvd D-611, Buena Park)
행사 일정: 5/7, 10, 14, 17일 오전 10시~11시
5/21, 24, 28, 31일 오후 3시~4시

센터메디컬그룹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니어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및 혜택에 관한 문의는 714-904-1701로 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퍼듀 대학 연구소, 실어증 환자 회복 돕는다

한인 실어증 커뮤니티가 실어증을 가진 한인들을 위한 그룹 모임을 갖는다. 모임은 매달 한번 온라인(Zoom)을 통해 한국어로 진행된다. 한인 실어증 커뮤니티는 퍼듀 대학교 실어증 연구소와 언어치료사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실어증은 뇌졸중 또는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언어 장애이다. 실어증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기, 말을 이

해하기, 읽기 및 쓰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지연 교수는 "한인 실어증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교수를 비롯해 한인 언어치료사, 언어치료 연구원, 언어 치료 전문가 7명이 이들 재활을 돕는다. 실어증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는 웹

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koreanaphasiacomunity>)를 참고하고 문의는 이지연 교수(765-494-3810, Email: lee1704@purdue.edu)나 민세인(Sally Min, 213-495-0265, Email: min116@purdue.edu)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일정: 5/9 목 오후 7시(미동부) 오후 4시(미서부), 6/13 목 오후 7시(미동부), 오후 4시(미서부)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스프링 대세일

Spring Big Event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10,000 Lease Cash Availabl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성한인교회 선교세미나 '킹덤 스쿨' SWM 선교회 김진영, 김성간 선교사 초청 5월 26일까지 매주일 개최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가 선교세미나 '킹덤 스쿨'을 21일 오후 1시 15분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SWM 선교회의 김진영 선교사(SWM 미국 국제대표)와 김성간 선교사(SWM 운영이사)가 강사로 나서서 21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매 주일(4/21, 28, 5/19, 26) 오후 1시 15분에 교회 분당에서 '하나님 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선교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란 주제로 강연을 한 김진영 선교사는 "튀르키예의 사람들을 보면 착하다. 10년 동안 그곳에서 섬겨도 한 명을 개종시키기 어려운 땅으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어렵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슬람권 국가에서 뼈저리게



나성한인교회가 선교세미나 '킹덤 스쿨'을 21일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진영 선교사(SWM 미국 국제대표)와 김성간 선교사(SWM 운영이사)가 선교를 주제로 강연한다. ©기독일보

느꼈다"라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생각했을 때, 하나 되는 것과 연합기도의 마음을 받았다. 그곳에서 2010년도에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킹덤스쿨을 하는 데 훈련

목적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는 것이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50점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은 단순히 영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라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우리 삶의 숙제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공로와 지식 그리고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

님의 은총으로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 선택하셨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가 온 민족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며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 온 민족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멩 기자

美 UMC, 총회 개최, 전·현직 감독들, 일치 촉구



총감독회와 UMC 회원들은 4월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202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복했다. ©flickr.com

→1면 기사 <UMC, 동성에 내홍 속 총회 개최>에 이어서

이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에 헌신하는 언약 공동체로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필리핀해외총회는 UMC가 교리를 바꿀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으나, UMC 내 일부는 LGBT를 더 포용하도록 장정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엘라베마주 휴우드에 있는 트리니티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인 브라이언 에릭슨(Brian Erickson)과

버밍엄에 있는 이스트레이크 연합감리교회 부목사인 HN 깁슨(HN Gibson)은 장정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표현을 제거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절반 이상의 교회가 탈퇴한 주인 엘라베마의 대표자들은 알닷컴(AL.com)에 "우리의 세 가지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동성애에 관한 유해한 언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신도 지도자이자 예비 총회대의원인 리사 키스-매튜스(Keys-Mathews)는 "UMC에는 진보적인 제안에 저항할 만큼 여전히 충분한 보수주의자들이 남아 있다"며 "양쪽 극단에서 큰 목소리가 들린다. 총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제8회 CA 바이블 컨퍼런스



제8회 캘리포니아바이블 컨퍼런스가 6월 1일 열린다.

2024 제8회 캘리포니아바이블 컨퍼런스가 <씨뿌리는 자와 하나님 나라>(마 13:3-9)를 주제로 6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4시 30분까지 아름다운교회(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478)에서 개최된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교수)가 '아가서'를 김선의 목사(포월트비치한

인제일장로교회, 월드미션대학교 구약학 교수가 '전도서'를 강의한다. 자녀들을 위한 컨퍼런스 'NEXT GEN CABC'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강사는 데니엘 현 전도사이다. 등록비는 \$50이며 현장 참석 또는 Zoom 선택 가능하며, 점심 식사 및 간식, 강의 교재 프린트 및 PDF 제공된다. 동반 자녀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등록은 CABC 웹사이트(www.cabile.org)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문의: (310)-702-2688 (셀리 안 선 교사) Email: info@cabible.org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비타닌드루멘

TOP7 미국투어 콘서트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멤버분 대상
선착순 **500**분 무료티켓을 드립니다.



장소 | 폐창가 리조트 썸릿

일시 | 5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무료티켓문의 | 센터메디컬그룹 환자 only (714-904-1701)

티켓구매문의 | 라온 엔터테인먼트 (714-660-3660)

[무료티켓문의: 월~금 오전 8시반~오후5시반]

복음을 가진 한 사람, 이 시대에 소망의 불 붙인다

지난 4월 21일, 씨드교회 권혁빈 목사는 “하나님이 세상을”(요한복음 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전하며, 구원을 내면적 변화로 축소해서 보면, 복음이 편협한 개념이 되고 왜곡된다고 경계했다. 또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구도 속에서 복음과 크리스천의 삶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그는 안식년에 코리안 다이아스포라 네트워크 모임이 있어서 태국을 방문했을 때 일화를 나누며,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다같이 바닷가에 갔다. 저는 물놀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물놀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몇몇 분들이 그냥 혼자 앉아 있으니, ‘저쪽에 가면 사격장이 있으니 사격하러 가세요’라고 하셔서 저는 별로 취미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혼자 있기 위해서 따라갔다. 근데 저만 과녁에 여덟 개를 맞췄고 나머지 분들은 과녁을 맞춘 게 몇 개 안 됐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가 사격 신동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저는 사실 잘하고 싶은 건 사격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고 싶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무엇을 가장 잘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가장 잘해야 할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복음을 가장 잘 알아야 한다.”

복음을 이해하는 두 키워드: 거듭남,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장 3절)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이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이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건강한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한다면 반쪽짜리 복음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

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개념만으로도 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다.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라고 하신다.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권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으며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마치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아직 목적지인 한국에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한국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미래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또 하나님 나라를 내면적인 것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 주권이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 가정과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 결국 복음은 내 삶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현실, 즉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된다.”

<두 도시 이야기>의 구도를 통해 본 크리스천의 삶의 의미

그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단과 소설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것 소설의 구도를 통해 크리스천의 삶의 의미를 해석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의 첫 문단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시기였으며, 빛의 계



권혁빈 목사(Seed Church)는 4월 21일 주일 설교에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했다. ©Seed Church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시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 소설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악과 폭력과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었던 시기였다. 이 문단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다. ‘우리는 모두 천국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즉, 혁명을 일으킨 자들은 절대군주, 권위주의가 무너진 좋은 세상을 기대했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도 혁명의 대상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 이 소설은 이러한 총체적인 사회적 난국, 유혈이 낭자한 시대, 그 속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쓰여졌다. 이 프랑스 혁명의 잔혹한 분위기 속에서,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한 이야기를 이 소설은 풀어나간

분이 어릴 때 예수를 믿고, 부모님께서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뿐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한다. 이분에게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이 있다. 어느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월가를 떠나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선교사 준비를 했다. 그런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선교사가 되는 대신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돌보자는 마음에 홀리스 사역을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딸의 장애를 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가 가정의 어떤 고난인 비극인가?’라고 생각한다. 우리 신앙은 나의 개인의 삶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장애를 가진 딸이 있지만 이것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내가 받은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거한다면, 그 구원은 편협하고 왜곡된 개념이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사람의 구원이 결코 한 사람의 개인의 변화로 머물지 않고 파급력과 영향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받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는다. 한 사람의 구원은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간다. 씨드교회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세상 속에서 예배가 시작된다. 여러분은 세상 속 선교사이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떤 분야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복음을 내면으로 축소시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복음이 단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 없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디 한 기자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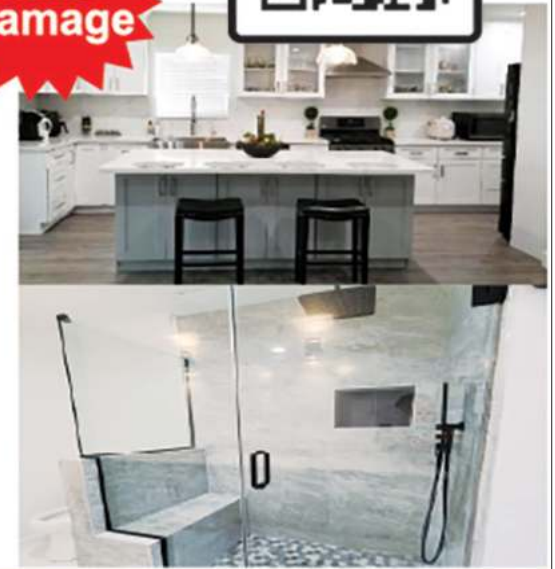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영화 같은 이야기>의 고봉준 목사, “저는 교도소 선배, 교도소는 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고봉준 목사(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남부지방회 소속 목사)

중학교 2학년 때 배를 뒀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학교를 그만뒀다. 17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할 나이 집을 훌쩍 떠나 서울로 상경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러다 부랑자의 삶이 시작되고, 폭력배, 절도 사건도 저질렀다.

감옥에도 2번 다녀왔다. 그가 잡혀간 감방 안에는 긴급조치 9호, 김대중 대통령, 김지하 시인, 서울대학교 정외과 4학년 학생들이 같이 있었다.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감옥에 나와서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고,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을, 짐승의 삶, 인간

이하의 삶이었다고 묘사하는 고봉준 목사가 LA를 방문해 죄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며, 복음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몸소 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일 4월 14일 고봉준 목사와 만나 그의 신앙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86년 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회개하려고 노력했으나 회개가 안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은 78년도입니다. 당시 베다니 교회(당시 최복규 목사님이 담임할 때)에 다니고 있었는데, 금요일야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이 불로 다가왔습니다.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내 몸을 탁 쳤는데 내 몸에 불이 붙어서 팔팔 뛰면서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이 다음에 교도소에 다니면서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부흥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속에서 타락하여 살다가 대장에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98년도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역은 92년도부터 교도소와 유치장을 방문하여 전국에 2천번 이상을 사역하고, 미국 LA는 73번째 부흥회를 이끌었고, 미국은 26번 집회를 했습니다. 17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해외 집회를 450회 정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해도 해결되지 않은 기도제목을 놓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28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2011년 3월 어느 날 교도소 사역을 갔다 오니 와이프가 ‘당신이 버린 아들이 당신을 찾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편지를 받고 아들 만나기 위해 미나폴리스로 가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눈물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는데 아들에게 용서받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아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내면이 치유 받고 난 후 부흥 강사로 들어 쓰시기 시작 하셨습니다. 아들과 저는 용서하고 용서받은 회복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켜 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금요일야 예배 때, 불 받아, “교도소 다니며 복음 전하는 부흥사 되겠다” 선언

“13년 동안 사역을 위해 1톤 트럭을 가지고 도매상에서 생선을 사다 팔면서 아파트 대출금 외에는 100% 다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원하는 기자재, 선풍기면 선풍기, 떡이면 떡 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사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는 LA집회가 끝나면 콜롬비아로 가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달 후인 6월에는 네팔에서 16번 설교할 예정이다.

고봉준 목사는 여전히 교도소와 노숙자 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개척교회도 자비량으로 가 섬긴다며, “철저히 회개했으니 불러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정직하게 부흥회를 인도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교도소 선배라며, 그의 책을

통해 많은 재소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전했다. “교도소는 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저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는 선배입니다. 실형을 2번이나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2천 번 이상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수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지도 주고 받으며 복음을 전하니 그들을 변화가 되었습니다. 때론 어려운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부었습니다.”

“제 책이 ‘꼴통목사의 전도법’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 책을 너무 많이 돌려봐서 책이 찢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한 형사분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에게 잡혀서 교도소에 간 사람이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자기도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고,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삶을 안 살겠다고 했다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이메일을 보내 온 학생도 있습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니 변화되고 싶어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수님께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분을 보이고 사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닮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고 많은 이들이 나를 향해 박수쳐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 영광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액션입니다. 믿음 있는 만큼 봉사하고 믿음 있는 만큼 물질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욕심 버리고 초대교회처럼 살면 성도가 몇 명 없어도 빛이 나고 힘이 납니다. 반대로,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 빛을 잃고 힘이 없습니다.”

정다혜 기자

美 진보 성향 교회, 드래그퀸 행사 비판 일자 취소

미국의 한 진보 성향 교회가 ‘드래그퀸(보통 여장한 게이를 지칭하는 말) 이야기 시간’(Drag Queen Story Hours) 행사를 계획했다가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마운트빌에 위치한 ‘희망의 비전 메트로폴리탄교회’(Vision of Hope MCC)는 오는 4월 27일 ‘티 파티’라는 모임을 위해 ‘미스 에이미’(Miss Amie)로 알려진 드래그퀸 공연자를 초대할 계획이었다. 교회 측은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

황과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홈페이지에 “이곳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비롯해 우리와 함께 걷는 모든 이들의 진정한 예배를 위한 안전하고 신성한 공간”이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실천되는 근본적인 포용성과 변혁적인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랭커스터 공립도서관은 지난달 미스 에이미가 출연하는 행사를 준비했다가,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누군가 의심

스러운 소포를 두고 가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CBS뉴스는 “랭커스터 경찰은 펜실베이니아주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도서관으로 출동해 시설을 정리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고, 위협 경보는 몇 시간 후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논란이 있는 후, 도서관 측은 이스트햄필드 타운십(East Hempfield Township)이 자금 지원을 철회하고 마운트빌 자치구 의회도 기부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마운트빌 자치구의 회 리처드 스피겔 부의장은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관점, 특히 논란이 되는 관점을 표현하거나 홍보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드래그퀸 행사는 지역사회 내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 왔다. 지난해 드래그퀸 쇼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을 받아 교회 기물이 파손된 오하이오주 체스터랜드 커뮤니티교회는 최근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발표된 라스무센리포트 연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60%는 “드래그퀸 이야기 시간은 어린이에게 부적절하다”고, 29%는 “적절하다”고, 1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美 USCIRF “수단 전쟁 발발 이후 150개 이상 교회 공격” 우려 표명



수단 기독교인(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오픈도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보고서는 지난 4월 수단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150개 이상의 교회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단무장세력(SAF) 신속지원부대(RSF) 간 충돌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종교 공동체가 황폐화되었다고 했다. USCIRF는 종교 유적지가 표적이 되어 파괴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USCIRF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으로 인해 1만3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무장 전투원들이 예배당과 기타 종교 장소를 표적으로 삼았다. 모하메드 마지드 위원은 성명을 통해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중에도 예배당과 종교 장소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며 “보호조항인 5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에서는 예배 장소와 종교 유적지가 계속해서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고 파괴되고 있다”라고 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RSF 무장세력이 와드 마다니(Wad Madani)에 소재한 복음주의 교회에 불을 지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1939년 건축된 이 교회는 게지라 주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이었다. RSF는 또한 와드 마다니(Wad Madani)에 있는 콧트 기독교 수도원을 공격하여 군사 기지로

개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폭력은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3년 5월 무장세력들이 교회를 침입해 성직자와 그의 아들을 포함해 4명에게 총격을 가했고, 교회 경비원을 찔러 건물을 약탈했다. RSF 무장세력은 또한 옴두르만(Omdurman)을 습격하는 동안 수단 장로교 복음주의 교회의 회원인 히다르 알 아민(Hidar Al Amin)을 살해했다. 알 아민의 친척은 RSF 무장세력이 그의 재산을 약탈한 후 그가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또 복음주의 목사인 코와 샬말(Kowa Shamal)이 RSF 무장세력으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간신히 죽음을 면했다고 라 크로아 인터내셔널(La Croix International)이 이달 초 보도했다. 샬말 목사는 이를 거부하다 폭사됨으로 이어졌고, 결국 23세 조카가 살해됐다. RSF는 그의 조카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제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최근 몇 달간 무력 충돌로 인해 종교 유적지가 파괴되는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USCIRF는 사헬 지역의 종교 자유 국제법의 종교 유적지 보호에 관한 출판물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가 이러한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나이지리아 치북 여학생 276명 납치사건 발생 10주년 추모식 열려



나이지리아 치북 납치사건 10주년을 맞아 추모식이 드러졌다. ©오픈도어

나이지리아 치북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된 사건이 발생한 지 10주년을 맞아 추모식이 거행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날 예배에는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딸들의 석방을 기다리는 중이다. 수년에 걸쳐 일부는 풀려났고 다른 일부는 탈출했지만, 82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세 자녀와 함께 석방돼 돌아온 딸을 맞이한 하나투 다우아(Hanatu Daa)는 이날 오픈도어와 인터뷰를 갖고 “다른 소녀들이 석방되는 모습도 보고 싶다. 우리는 함께 포로로 잡혀 있던 다른 딸들의 석방을 간구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놓아 주시길 바란다. 현재 보코하람에게 이들을 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쳤다”고 했다.

2014년 4월 16~18일 당시 16~18세였던 소녀들은 테러단체 보코하람에 의해 학교에서 납치됐다. 치북부모회 야쿠부 은케키(Yakubu Nkeki) 회장은 “10

년이 지났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치북이 무슨 행동을 해서 자식들이 풀려나지 않았는가? 그들이 나이가 들었고 각각 10명씩의 아이를 낳았다 해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지리아 북부와 중부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대변해 온 나이지리아 인권변호사 자베즈 무사(Jabez Musa)는 “지난 10년간 치북의 가족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었다. 일부는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인해 병에 걸렸고, 일부는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풀려난 소녀들 중 일부가 재발을 위해 머물고 있는 IDP 캠프에서 나온 보고다. 우리는 그곳의 정부 관리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소녀들 중 일부를 보코하람 반군과 결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나이지리아는 오픈도어가 발표한 올해의 기독교 박해국 목록(World Watch List)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Grid of church profiles for the LA region, including LA 백송교회, LA 사랑의교회, LA 씨티교회, 나눴다와 섬김의교회, 나성영락교회, 동양선교교회, 새 한우리교회, 올림픽장로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한길교회, 한마음제자교회, 가디나선교교회, LA 석성교회, LA 사랑의교회,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영생교회,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교회,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선교교회, 이향영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inex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LA 323.733.8814 OC 714.522.8818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합술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합술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2025년 미주한인의 날 행사 브루클린 제일교회서 개최



왼쪽부터 브루클린제일교회 손경동 시무장로, 이윤석 담임목사, 박상원 회장, 김영순 지회장. ©브루클린한인회

뉴욕 브루클린한인회(회장 박상원)는 미주한인이민 122주년 기념의 해인 2025년에 미국 국가기념일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기념행사를 뉴욕 브루클린제일교회(담임목사 이윤석)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은 200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5년 12월 미연방의회 상·하원에서 제정결의안이 통과되면서 2006년부터 미 전지역에서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박상원 회장은 첫 기념일부터 꾸준히 헌신적으로 봉사해오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024년 1월 24일에 서울 조선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뉴욕 브루클린한인회는 2025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을 통해 한인 및 한인 단체들이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확신으로 브루클린제일교회를 방문하여 기념일 준수와 기념의 중요함을 소상히 설명했고 이에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공식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만남은 브루클린한인회 이준성 지도목사의 중재로 4월 17일 오후 4시 30분에 박상원 한인회장이 교회를 방문해 이뤄졌으며 신문 광고에 의해 선임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미국동부지회 김영순 지회장도 동석했다.

브루클린제일교회: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김민선 기자

미주 바이블 백신센터 개소식 5월 21일

미주 바이블 백신센터(디렉터 에스라 김 목사)가 센터를 개소하고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바이올라 대학교(주소: 13800 Biola Ave, LA Mirada, CA 90639, 비지니스 빌딩 109호)에서 기념식을 연다.

바이블 백신 센터는 거짓 교리로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지키고 비진리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 2020년 양행주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단 예방/구출/회복 사역을 하는 "Finally Free International Ministries"의 대표 에스라 김 목사가 동역하고 있다.

한편, 에스라 김 목사는 5월 3일(금)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 EM 채플(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90031)에서 영어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신전지 예방 세미나에 강사로 선다.

미주 바이블 백신센터 개소식

일시: 2024년 5월 21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바이올라 대학교
주소: 13800 Biola Ave, LA Mirada, CA90639 (Business Building Room 109)
* 주차는 Parking Lot A에 하시면 됩니다.
* 행사 후에는 점심이 제공 됩니다.

바이블 백신센터는 거짓교리로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지키고, 교묘한 비진리에 거룩한 저항력을 기르는 것을 돕기 위해 2020년 한국에서 양행주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점점 더 해외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들을 대치하는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센터장 에스라 김 목사 드림
문의: 714-683-9894
주최: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 biblevc.org
협찬: 바이블 백신 센터, Finally Free 국제 선교회

Bible Vaccine Center
America

코리아타운 시니어 센터 한식메뉴 제공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5월 1일부터 한식 메뉴를 제공한다.

LA시 노인국은, 배급식 달 반만에 한식 메뉴를 배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니어센터는 지난 1월 16일부터 LA시 노인국과 함께 지역 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 점심 식사 배식을 진행하고 있다.

시니어 센터에 따르면,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한식을 (1)미국 정부가 (2)정부기금으로 (3)음식전문 운송차량과 직원에 의해 (4)미국인들에게 (5)매일 300 인분씩 (6)현장으로 직접 배달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한식 K-푸드 글로벌화에 앞장서 온 신영신 이사장이 지난 9개월 동안 LA시 관계부서 및 시 담당자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5월 1일부터 한식 메뉴를 제공한다. ©시니어센터

과 끊임없는 접촉으로 이루어 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LA시 노인국은 "우선 Koreatown Senior Center 200개와 Angelus Plaza, Crescent Arms, Steel Plaza 등 3 곳에 100개를 포함, 모두 4 곳에 한식 300개 배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심 무료배식을 받으려면, 시니어센터에 준비된 신청서류 작성 후 바코드 카드를 받아야 한다.

문의: (213) 387-7733 sck_2002@naver.com, ksccla@gmail.com
웹사이트: www.ksccla.com

교회 단신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Family Funfair'은 가족 놀이마당'을 연다.
온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 게임, 점포, 음식 등이 제공된다.
일시: 5월 5일(주일) 12:45~3PM

장소: 본당 앞 주차장
문의: Sam Hahn 전도사 (714-299-2530)
※ 당일 본당 앞 주차장은 행사 관계로 이용할 수 없음.
▶Glendale Presbyterian Church(glenpres.org)가 현재 위치로 이전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

여 4월 27일 (토) 오후 1시~5시까지 축하 행사를 진행한다.
바베큐, 게임, 페팅 동물원(Petting zoo), 솜사탕 기계 등 많은 즐길거리가 준비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주소: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사설

‘유신진화론’ 논란에 대한 엇갈린 시선

서울신학대학교가 ‘유신진화론’ 논란에 휩싸였다. ‘유신진화론’이란 ‘하나님이 진화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가설로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상이 창조됐다는 ‘창조론’과 대비돼 복음주의 교단 신학대학 안에서 벌어진 논란이 낱설 수 밖에 없다.

서울신대 내 ‘유신진화론’과 관련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이 대학 법인이사회가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강의와 주장을 한 박 모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를 놓고 진보·보수 학회간에 대립적 양상이 벌어지는 등 외부로까지 확산하자 황덕형 총장이 학내에 경위를 설명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그 전모가 밝혀졌다.

황 총장이 공개한 글에 의하면 서울신학대는 지난 2019년 신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유치를 위해 ‘창조과학’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강사로 임용했다. 그런데 박 모 교수가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한 게 문제가 됐다. 그 이후 박 모 교수가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논쟁을 이어가자 2021년 지방회 감찰회 목회자들이 대학 측에 박 교수의 저술과 논문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해 10월 대학측이 신학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내용을 법인이사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 모 교수는 ‘신학적 고백과 반성’이라는 자필 서명 문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 가운데 내용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고 ‘복음주의 신학과 교단의 신학의 전통과 고백들을 신학적으로 수용하고 해명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된 건 박 모 교수가 SNS에 그간의 과정에 관련된 인물들을 향해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게 발단이 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총장에게 제출하기로 약속한 ‘성경교회 창조론 연구’ 논문이 제출되지 않자 대학측은 박 모 교수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를 법인이사회에 보고했다.

서울신학대는 박 모 교수에 대해 “교단 및 외부에서 제기되는 신학적 정체성 논란이 대학 건학 및 교육 이념과 복음주의 신학에 위배되며,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대학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론, 학회, 동교회, SNS 등을 동원해 대학과 법인이사회를 비방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신대 법인이사회가 박 모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부 학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문화신학회는 “누구보다

성실한 신학자의 연구결과를 소위 교단의 신학과 위배된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조치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극히 위험한 사태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양학회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과학과 이성을 신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 했던 과거 교회 역사 속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창조적인 신학을 위한 노력”이라며 박 교수의 ‘유신진화론’을 감쌌다.

그러나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타협이며,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며 “생물학적 진화나 빅뱅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신념에 기반해 성경에 기록된 창조를 진화론과 타협하여 해석했다는 점에서 가설과 추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신론적 신념인 진화론과 다르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신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지난 11일 법인 이사회의 박 교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외부의 소수 목회자가 제시한 관점에 경도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율적인 토론과 연구를 권장해야 할 대학의 의무와 명분을 저버린 행위이자 명백한 교권 침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자, 신학부 교수 25명은 “‘유신진화론’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유신진화론’은 ‘창조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시대정신에 만족한 설명을 하지 못하자 나온 다양한 타협이론 가운데 하나라는 견해가 있다. 생물학적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 창세기를 진화론에 꺾어맞췄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특히 복음적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이론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의심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대학은 서로 다른 논리와 주장이 상존하는 곳이다. 내 생각과 다른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을 포용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허용되기에 ‘학문의 전당’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수가 대학에서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히는 건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교단의 신앙고백과 다른 주장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 신학교의 경우 학문적 자유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신앙고백에 우선할 순 없다. 학문은 학문으로 그쳐야지 신학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건 자기 부정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실수라면 진솔한 사과로 그칠 일이지만 변함없는 소신이라면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책임지는 것 또한 오히려 본인 몫일 것이다.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 진보·보수 학회간에 대립적으로 확산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타협

진유철 칼럼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공중 그네 타기에서 서로 다른 쪽에서 날아와 몸을 날려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다른 쪽 사람이 잡아주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공중을 날아가는 곡예사에게 맞추어지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안전하게 잡아주는 사람(receiver)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능숙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사이의 격차와 오차를 능숙하게 극복하고 붙들 수 있는 쪽은 잡아주는 사람이기 때



것입니다. 질그릇이 금 그릇, 은 그릇 되려고 싸우면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가면 쓰며 위선을 떠는 치졸함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천하게 쓰임 받을 질그릇이 자존심만 내세우면, 오히려 별 거 아닌 것으로 상치나 잔뜩 입고 힘까지 잃게 됩니다. 질그릇은 오직 담은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을지라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존귀한 그릇, 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총만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

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4:7)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할 정도로 화려하고 존귀해 보였습니다. 험당할 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고, 엄청난 수의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또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는 양과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으니까 성전에 가득히 임하였습

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영광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인생이 금 그릇 은 그릇 되겠다고 ‘나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고, 내가 누구하고 친하고, 내가 과거에 뭘 했고.....’ 그러면서 싸우지 말고, 중심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되는 싸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살람!

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구르고 힘차게 날아올라도 내 생각과 다른 문제나 어려움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잡아주는 분이 능력자이면 오차와 격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아무리 커도 잡아주는 분이 하나님이면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나 대적보다, 불경기보다 크시고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 있게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사45:9)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자, 천한 자가 존귀해질 수 있는 길은 담은 내용물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그릇은 “되는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는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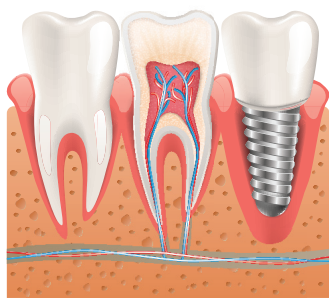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리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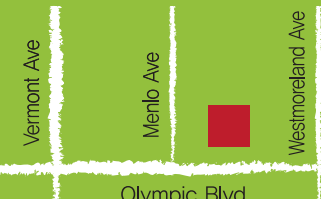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리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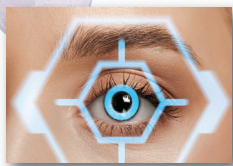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김인수 칼럼

조용한 혁명 11 계명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1891-1937)는 이탈리아 공산당 중앙 위원으로 조용한 혁명 십일(11)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Karl Marx가 제시한 공산주의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실패했으므로, 이제는 조용한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람시가 발표한 조용한 혁명 11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2.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3. 가족을 해체하라. 4.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5. 교회를 해체하라. 6.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7.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8.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9.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게 하라. 10.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키라. 11.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람시가 제시한 이 11조항은 한마디로 기독교를 없애려는 공산당의 조용한 음모입니다. 그람시는 막시즘에 휴머니즘의 옷을 입혀, 사람을 중시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즉 사람을 우선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신(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신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오막시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통적인 지배 권위가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고 기독교 해체를 지상 명령으로 삼고 혁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람시는 이탈리아에서 공산혁명이 실패한 원인으로 문화적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방법론으로 문화마르크시즘(Cultural Marxism)을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및 교회 등 상부 구조 기관들을 장악하는 방법을 통해 조용한 혁명을 새로운 전략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런 길고 조용한 혁명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목표 아래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람시는 자기가 주장한 이 조용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자 인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면서, 교회 파괴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영국교회(성공회), 미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연합그리스도의교회 등 대 교단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람시의 문화공산주의 뜻에 걸려 든 것입니다.

조용한 혁명은 인권을 강화한다며, 십계명의 6계명을 문개고 낙태를 일상화 시켰고, 7계명의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성(性)을 결정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었

다고 주장합니다.

말세가 되어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더욱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파괴되면 공산당 세상이 됩니다. 6.25 사변 때, 공산군이 남한에 와서 손양원 목사를 위시해서 수많은 목사, 장로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죽일 처분했고, 가는 곳 마다 예배당을 불살랐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무서운 사탄의 전위대입니다.

조용히 교회를 파괴하려는 수많은 그람시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한국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가(그람시의 제자들) 장차 지극히 높은 신 이(하나님)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자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다니엘 7:25)고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무서운 사탄의 세력을 격파하기 위해 다 같이 힘써 기도합시다.

백인호 칼럼

나는 유신론자였다



백인호 장로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한동안 자고 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고 가래로 인해 목소리가 안나와 애를 먹었다.

감기가 왔다 간 지 아마 6년은 된 것 같다. 며칠전 자다 보니 목이 으실으실 쭈뼌니 콧물과 기침이 나기 시작한다. 감기란 놈이 찾아온 모양이다. 이틀동안 기침 콧물로 괴로웠다.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니 감기기도 서서히 사라지고 안 나오던 목소리도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세상에! 감기의 은혜로 목소리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니... 하면서 혼자 중얼 거린 적이 있다.

나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 예수가 지상에 온 목적도 몰

랐다. 철없는 시절 시골에서 한 여름 어른들이 마당에 멍석 깔아놓으면 어른들 틈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무엇이 나올까,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라는 것을 막연히 믿었다. 누가 설득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그냥 믿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 영적인 영안이 밝혀져 사도신경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초등학교 동창 친구는, 나를 만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나를 설득하기란 꽤 수월했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창조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말에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나이는 같은 또래지만 어린 나이에 엄마를 하늘 나라로 보냈고 얼마후 아빠마저 세상을 떠났다. 의붓 어머니와 피난와서 어려운 살림에 시달리다 보니 세상 물질은 나보다 훨씬 앞선 아이였다. 더구나 폐병으로 건강에 시달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이였다. 그는 끈질기게 나를 전도했다. 내가 어렸을 때 겁이 많고 마음이 모질지를 못했던 것도 하나님을 빨리 받아 드리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후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추운 벌판에 팽겨쳐 뒹굴고 있는 불쌍한 존재인 인간들을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도 알았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명예나 부나 건강도 남달리 만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아이들도 잘 성장시켜 주셔서 제 갈길을 갔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사람이 살면서 부정적으로 늘 불평만 한다면 결코 행복은 찾을 길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번에 감기 걸려 목소리 고쳐 주신 것도 감사할 뿐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침묵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절로 느껴진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천사중 타락한 사탄이란 자가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늘로 터 지상으로 추방되어 위정자들의 배후를 조정하며 이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세상이 왜 점점 악화져 가는지도 알게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나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듯하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숙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탄 마귀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장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세상에 물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유신론자가 되어보자.

Biblely advertisement for audio Bibles. Includes text: "단 30분 녹음으로,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세계 최고 수준의 시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and pricing for premium and basic packages.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SEOUL MEDICA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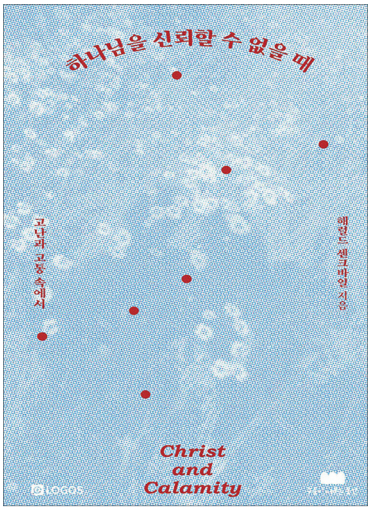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바람 불 때, 예수님 손을 더 굳게 붙잡으라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해럴드 센크바일 | 김태형 역 | 구름이 머무는 동안 | 216쪽 | 14,000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책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성경 구절은 인생의 험난한 순간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난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함께 하신다.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오랫동안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문장을 찾으라. 고난의 시간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했다면, 그러면 내 삶은 형통하고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분명한 간극을 줄여줄게 하는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특히 삶이 곤고하고 괴로우며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고통의 문제는 기독교를 가장의 심스럽게 만드는 실존적 문제다.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통이 없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고통도 실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이들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끝까지 믿고 싶어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거나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루터교 영적돌봄센터(Doxology) 전무 이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 신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50년 가까이 신실한 삶을 살아온 해럴드 센크바일은 가깝게는 사위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고, 또한 여러 사역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저자다.

그의 책 <목자, 개, 양 떼>는 그의 농장 경험과 목회 경험을 조화롭게 담아내, 성경적인 목회가 무엇인지 탁월한 교훈을 제시하였는데(무근검, 2023), 이번에 그가 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인생의 어려

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짚지만 분명한 지혜를 제공한다(구름이 머무는 동안, 2024).

신선한 출판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민수기 9장 17, 18, 19, 20절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네 번 나온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멈추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행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름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며 다시 행진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를 채워 갈 따뜻한 책을 만듭시다'라고 출판사는 감춰둔 바람을 고백했다.

센크바일은 예전의 형식이 분명히 살아있는 루터교 출신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구성뿐 아니라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된 일상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의 틀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주기도문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심령을 바른 우선순위로 가다듬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 기도문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드러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 상처와 주변의 상황에 온통 집중돼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일상의 공급과 보호를 구하는 올바른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돼 고난과 그 가운데 발견해야 할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 불신: 신실하신 그리스도, 눈물: 편드는 그리스도, 고통: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왕 되시는 그리



©Pexel

스도, 약함: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슬픔: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 어둠: 빛 되시는 그리스도, 외로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죽음: 생명이신 그리스도. 첫 장은 '당신의 고난'이고 마지막 장은 '당신의 승리, 그리스도'이다.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그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됐는데, 새번역판을 사용해 신선하고 유익했다.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맞이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이 책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만큼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독자에게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각 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길고 집요하게 파고들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함당한 분량이고, 내용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그리스도

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고통 중에 있는 독자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들로 걱정과 불안에 빠지는 대신 그것들을 예수님에게 가져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분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잠재우신다. 하루에 하나씩(167쪽)."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다. 이 책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고통 중에 있는 독자에게 다 시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책이 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찰스 스펠전 & 랜디 알콘 -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은 이 땅을 벗어난 실존이며, 이 땅의 삶에 속하는 것들을 초월한 것이다.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경험한 최고의 순간들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비로소 최상의 삶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사후(死後)의 삶(afterlife)이라고 부르기도는, 이 땅의 삶을 사전(死前)의 삶(beforelife)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혀 있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확실히 믿기 바란다. 몸을 무덤에 두는 것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는 것과 같다. 똑같은 금으로 다시 나올 것이지만, 모든 불순물은 제거

될 것이다. 모든 귀중한 것은 그대로 남을 것이지만, 썩을 것, 더러운 것, 죄 된 것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는 원래 모습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저주로 인하여 빛을 잃은 현재의 지구조차 때문 너무나 아름다우며, 저주 때문에 연약해진 우리의 몸조차 이 땅의 아름다움과 경이에 압도된다면, 새 땅은 얼마나 더 장엄할 것인가?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명희 권사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룩하였느니라
로마서 13:8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for whoever loves others has fulfilled the law.
ROMANS 13:8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동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상담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116261227-9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신학, 상담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교양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rn.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l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삼체> (1)

또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 반중 아닌 반기독교



외계인의 침공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학자들의 활약을 선보이는 TV 시리즈 <삼체>.

중국 공산당과 반기독교 섞인 SF 종교=기만적, 공산당식 종교 이해 기독교 요소, 모두 인류 생존 위협 설정과 서스펜스로 세련되게 포장

◆중국 공산당과 기독교: 원작 작가 류츠신의 친공산당, 반기독교 성향

넷플릭스 오리지널 TV 시리즈 <삼체>(Three Body Problem)는 세 개의 태양을 가진 항성계 알파 센타우리 출신 외계인들의 침략과 이를 막으려는 과학자들의 활약을 선보이는 작품이다. 세계 SF문학계에서 인정받는 중국 소설가 류츠신이 집필한 동명 소설이 원작인 작품으로, 지난 3월 21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다.

중국 근현대사의 초대형 비극인 문화대혁명을 모든 사건의 발단으로 삼는 작품인 까닭에,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 원작 소설이 검열에 걸리지 않고 크게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오로지 문화대혁명 하나만 집중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은 대약진운동만큼이나 희대의 망국적 광기에 휩쓸려 진행된 사건이고, 따라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국부나 다름없는 모택동의 치부로서 감추고 싶은 사건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모택동 사후의 중국 권력자들(등소평, 강택민, 습근평(시진핑) 등) 대부분이 문화대혁명 당시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

물론 중국 내에서 문화대혁명 비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영화 <패왕별희>처럼 그 비인간성에 대한 묘사 수위가 적나라하다면 검열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삼체> 역시 문화대혁명

의 광기와 당시 중국 공산당의 비인간성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상세하기 때문에, 작품을 본 중국인들이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한 비하 의도가 담겨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체> 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폭력적 압제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원한 및 트라우마는 줄거리의 개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이다. 알파 센타우리 외계인들에게 지구 문명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침략 준비를 돕는 핵심 악역 중 하나인 물리학자 예원제가 바로 문화대혁명 때문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머니와 동료들의 참담한 배신을 겪은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결국 예원제는 인간들과 인류 문명 전체에 대한 환멸과 원한 때문에 외계인들에게 지구를 넘겨주는 '매국노' 역할을 맡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악역 예원제가 외계인들의 침략을 돕는 방식이다. 그는 거대 석유재벌인 애인의 도움을 받아 비밀 사이버 종교단체를 설립한다. 이 단체는 외계인을 추종하고 그들의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악의 집단이다. 예원제는 이 외계인들을 '주'(Lord)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주'가 지금의 무가치한 인류를 심판하고 추종자들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 대목에서 원작 소설가 류츠신의 종교에 대한 이해 방식,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잘 드러난다. 류츠신은 자주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했고, 위구르족 압제도 정당화해서 구술수에 오른 적이 있는 인물이다.

류츠신이 <삼체>에서 문화대혁명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공산당에 대해 비판적 인물이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류츠신의 세계관을 보면 그가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예술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지침

을 충실하게 따르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넷플릭스와 기독교: 류츠신의 반기독교적 종교 이해를 환영하는 넷플릭스

소설 <삼체>의 줄거리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종교가 기만적이라는 공산당식 종교 이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덕분에 중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일면을 핵심 소재로 삼았으면서도 중국에서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크게 흥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종교들, 특히 기독교 계열 종파들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 주는 대중문화 콘텐츠에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여 왔다.

사실 <삼체> 안에서 작가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시켜 주는 소재나 설정은 사이버 종교 말고도 많다. 류츠신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므로 확인할 수 없지만, <삼체>의 알파 센타우라 외계문명에 대한 설정 가운데는 기독교적 소재가 많이 가미돼 있다. 태양 세 개의 합일, 불과 고열로 멸망하는 문명, 400년 후 지구에 올 구원자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종교인들, 인류의 죄업에 대한 심판, 이것들은 미국의 <삼체> 시청자들이 자주 성서로부터 차용한 소재라고 지적하는 설정들이다.

이 소재들은 <삼체>의 줄거리 속에서 모두 인류의 멸망과 심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소개된다. 세 태양의 합일은 알파 센타우리 문명의 반복된 멸망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알파 센타우리의 외계인들은 가까운 항성계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천체 환경조건을 가지고 문명을 꽃피운 지구를 침략해 정복하려 한다.

이 외계인들과 교신하는 소수의 지구인들은 외계인들을 추종하고 숭배하면서 그들이 인류를 정복하고 심판하는 일을 예비한다. 이처럼 <삼체>에 등장하는 기독교적 요소들은 모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소개된다.

이런 설정은 넷플릭스의 작품 제작 성향에도 잘 들어맞는다. 중국 공산당의 실정과 인권유린 사례를 폭로하면서, 동시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심어주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진다.

근래 개봉되는 거의 모든 미디어 콘텐츠 대부분이 <삼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반종교적·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인다. 얼마 전 개봉한 SF <툰: 파트 2>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원래 프랭크 허버트가 집필한 원작 소설 <툰>은 1965년 발표된 작품으로, 제국의 압제에 저항하고 사막 소수민족의 생존을 지켜내는 희생적 구원자 폴 아트레이데스의 이야기를 중심 줄거리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마주한 주인공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정의로운 박애심을 어느 정도 긍정하는 태도를 엿보인다. 그러나 근래 영화화된 <툰: 파트 2>는 구원자로서의 책무가 폴 아트레이데스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초월적 힘이 어떻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억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전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묘사하고 있다. <삼체>는 최근 이런 전 세계 미디어 업계의 반종교적·반기독교적 성향



중국에서 제작된 대중문화 콘텐츠, 그리고 넷플릭스의 미디어 콘텐츠 거의 대부분은 늘 사상적·신학적 진단과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을 반영하는 동시에, 모든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해 적대적인 중국 공산당의 입장까지 옹호하는 시선을 담은 작품이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독특한 천문학적 설정, 그리고 음모론적 서스펜스를 통해 세련되게 포장돼 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중국에서 제작된 대중문화 콘텐츠, 그리고 넷플릭스의 미디어 콘텐츠 거의 대부분은 늘 사상적·신학적 진단과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삼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교훈일 것이다.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또 쉽게 동ну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라스베가스 한인교회를 가다 3

커뮤니티교회 이정환 목사

“주일예배 나온 성도 35명이 모두 새벽예배 나오는 것 보고 더욱 책임감이 커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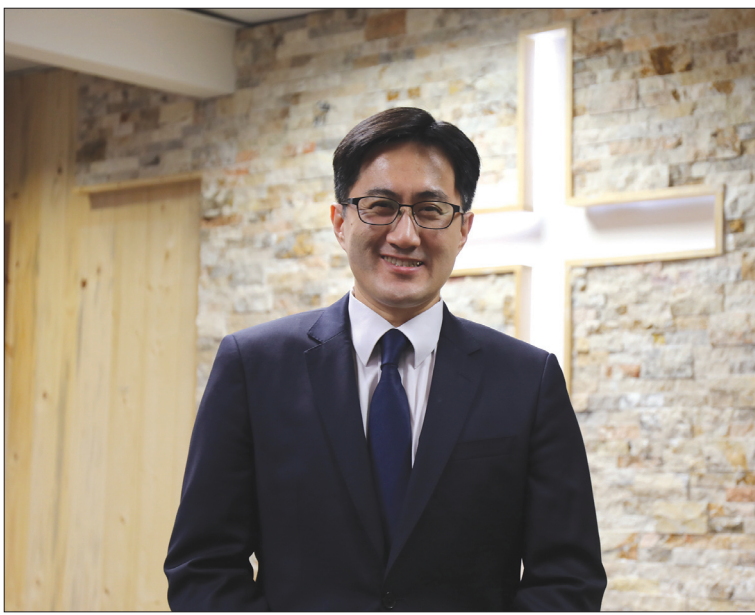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는 현재 조금씩 성장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했고 팬데믹이 끝나가던 무렵인 2022년 9월에 현재 담임인 이정환 목사가 부임한 이후 새로운 가정들이 꾸준히 교회를 찾고 있다.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정환 목사는 이전까지 토렌스 조은교회(김우준목사)와 코로나감사한인교회(백승찬 목사)에서 각각 행정 목사로 섬겼다. 두 교회 모두 남가주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교회로 이곳에서 행정 목사로 담임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이민교회 목회수업을 받은 셈이다. 담임으로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도 이정환 목사의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를 향한 애정이 인터뷰 내내 느껴졌다.

“행정 목사 시절에서도 담임 목회에 대한 소망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가서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날 토렌스조은교회 김우준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담임이 필요한 교회가 있다고 하셔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저는 김우준 목사님과 토렌스조은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축복과 사랑, 격려를 받았습니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정환 목사는 지금도 여전히 김우준 목사와 계속 연락하며 목회에 대한 조언도 듣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김 목사를 라스베가스로 초청해 부흥회도 열었다. 여전히 닮고 싶은 부분이 많다고 했다.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있으면서 김 목사님이 사역에 있어 성도들과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엄밀하셨고, 그런 것들이 전부 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토요일 밤에 말씀 준비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김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뭐하냐고 물으시길래 사무실에 있다고 말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 담임 이정환 목사 ©기독일보

씀드리니 왜 10시 넘는 시간까지 늦게 사무실에 있느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목사님도 지금 사무실이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런 것 좀 배우지 말라고 하셔서 서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깊은 관계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90명, 유년부와 초중고등부까지 다 합치면 총 12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정환 목사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성도들로부터 느꼈던 것은 교회를 어떻게든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의와 헌신이었다. 특히 팬데믹 중에도 담임 목사가 공석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목사의 설명이다.

“하나님께서 아픈 기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는 2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일예배 참석인원이 35명이었고, 부임 후에 첫 새벽예배를 드렸는데 그 인원 그대로 참석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때 당시의 35명이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 주고 계셔서 제가 사역하는데 있어

서 굉장히 큰 힘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분들이 중심을 잘 지켜 주시기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목사의 목회비전은 확고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르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다. 라스베가스 지역의 한인 숫자는 3만에서 많게는 5만까지도 추산된다. 한인들 규모에 비해 현지 한인교회를 출석하는 인원은 다른 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여기 한인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제자화 되어서 많은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근간입니다. 제가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이 됐지만 해외선교를 한번도 하지 못해서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아 멕시코 선교를 처음 나가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결국은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고 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자랑입니다” 교회가 1년반 동안 성장하면서 내적으로 많은 변화들도 있었다. 우선은 소그룹이 활성화

됐다. 소그룹은 매주 모임을 통해 주일예배 설교말씀을 성도들끼리 한 번 더 나누고, 또 일상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에 적용해 소감을 나누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이끌고 있다. 주중 성경공부도 참여자가 늘면서 성도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 수요일에는 ‘수요일 씩기도회’로 지키고 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3가지 기도제목과 주고 뜨겁게 기도한다. 이 목사가 선교 비전을 공유한 이후 이를 위해서도 실천적인 방법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이 목사가 라스베가스로 간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던 주변의 목회자들은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가주보다 더 척박한 목회 환경인데다 커뮤니티교회 가 활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우려했던 것이다. 라스베가스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자녀들이 남가주 토렌스의 좋은 학교와 편의 시설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녀들이나 가정적으로도 큰 결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자녀들과 사모 모두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특히 그는 커뮤니티교회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주신 것에 큰 감사를 느낀다고 고백한다. 1년 반을 함께 지내며 이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커졌고, 성도들 또한 자신의 목회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마음을 맞춰 주기에 지금은 어느 때 보다 기

쁜 목회를 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간증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거의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데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는 올해 소망 가득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꾸준한 성도들의 성장과 함께 라스베가스 홈리스 사역에 교회가 함께 동참해 힘을 보태기도 하고, 멕시코 선교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이 목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겠지만 특히 저희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예배, 평일 성경공부, 그리고 삶으로서의 예배, 이 세가지가 서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있어 매우 진지합니다. 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진지한 자세로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기에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는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김대원기자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 주일예배 모습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동역자 청빙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남성수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실 동역자를 청빙합니다.

가. 청빙 대상

- EM 교육부 전임 부목사 1명 (자격: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 해외 파송 선교사 1명 (자격: 5년 이상 헌신 가능자)
- 주일 1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 1명 (자격: 유경험자)

나. 지원 서류

- 이력서 (사진 부착,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별도의 가족사진)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신앙고백 및 소명과 사역 경험에 관한 항목을 필히 기재)
- 추천서 2부 (현재 출석 교회의 담임목사, 존경하는 목회자 각 1부씩)

다. 접수 및 문의

- 모든 지원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kcocoffice2@gmail.com)
-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E-mail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cocoffice2@gmail.com)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은 개별 통지합니다.(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사례비에 대한 내용은 면접 시 알려드립니다.
- EM 교육부 전임 부목사 사례는 담임목회자 수준으로 대우함

라. 접수 기간 : 2024년 5월 31일까지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Seeking Positions to Fill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Senior Pastor: Joshua Nam) is seeking co-workers to work together for the kingdom of God.

A. Positions

- Full-time associate pastor for EM Department of Education (Qualification: seminary graduate)
- Overseas missionary (Qualifications: Those who can devote more than 5 years)
- Choir director for the first Sunday worship service (Qualification: Experienced)

B. Supporting documents

- Resume (attach photo, enter contact phone number, family photo)
- Self-introduction (be sure to include self-introduction, faith statement including the call to ministry and ministry experience)
-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one from the senior pastor of the church you currently attend and one from a pastor you respect)


C. Contact and inquiries

- All application documents are accepted only by email, (kcocoffice2@gmail.com)
- Recommendations must be sent directly by email from the pastors, (kcocoffice2@gmail.com)
- After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interviews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ested).
- Salary will be discussed during the interview.
- Full-time associate pastor for EM Department of Education's salary comparable to senior pastor salary.

D. Application deadline : Until May 31, 202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93
www.kccoc.com / 714-893-1652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원미생할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EYE HEALTH LUTEIN ZEAXANTHIN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비타민E,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C, 아연, 구리, 셀레늄

건강기능식품 500mg x 30캡슐(15g)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원미생할
루테인 밀크씨슬 프리미엄
LUTEIN MILK THISTLE PREMIUM

밀크씨슬 추출물, 마라곤드, 꽃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2, 비타민B6, 아연

건강기능식품 900mg x 30캡슐(27g)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원미생할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프리미엄
LUTEIN ALT OMEGA3 PREMIUM

EPA 및 DHA 함유 유지, 마라곤드꽃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건강기능식품 1,000mg x 30캡슐(30g)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01



원미생할
간건강 가득 밀크씨슬
MILK THISTLE FULL OF LIVER HEALTH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E, 나이아신, 엽산, 셀레늄, 아연, 구리

건강기능식품 900mg x 30캡슐(27g)

간 건강
간건강 가득 밀크씨슬
\$14.90 ▶ **\$11.90**

02



원미생할
루테인 밀크씨슬
LUTEIN MILK THISTLE

밀크씨슬 추출물, 마라곤드, 꽃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2, 비타민B6, 아연

건강기능식품 900mg x 30캡슐(27g)

간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03



원미생할
CMG 간N 밀크씨슬
CMG LIVER N MILK THISTLE

간N 밀크씨슬, 마라곤드, 꽃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2, 비타민B6, 아연

건강기능식품 900mg x 30캡슐(27g)

간 건강
CMG 간N 밀크씨슬
\$27.90 ▶ **\$23.90**

04



원미생할
간에는 밀크씨슬
LIVER HEALTH MILK THISTLE

간N 밀크씨슬, 마라곤드, 꽃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2, 비타민B6, 아연

건강기능식품 900mg x 30캡슐(27g)

간 건강
간에는 밀크씨슬
\$21.90 ▶ **\$18.90**

05



원미생할
위건강 위건강
STOMACH HEALTH

신경엔 마그네슘, 비타민B1, 비타민B6, 아연, 구리, 셀레늄

건강기능식품 600mg x 30캡슐(18g)

위 건강
위건강
\$18.90 ▶ **\$15.90**

06



원미생할
신경엔 마그네슘
MAGNESIUM

신경엔 마그네슘, 비타민B1, 비타민B6, 아연, 구리, 셀레늄

건강기능식품 1,000mg x 30캡슐(30g)

신경을 위한 건강제
신경엔 마그네슘
\$19.90 ▶ **\$16.90**

07



원미생할
비타민D 4000IU
VITAMIN D 4000IU

비타민D, 아연, 구리,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0mg x 30캡슐(9g)

항산화엔 비타민 D
비타민D 4000IU
\$13.90 ▶ **\$11.90**

08



원미생할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가득
FULL OF CALCIUM MAGNESIUM ZINC VITAMIN D

비타민D, 아연, 구리,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1,000mg x 60캡슐(60g)

항산화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가득
\$15.90 ▶ **\$12.90**

09



원미생할
CMG 항산화 비타민 D
CMG ANTIOXIDANT VITAMIN D

비타민D, 아연, 구리,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0mg x 30캡슐(9g)

항산화엔 비타민 D
CMG 항산화 비타민 D
\$18.90 ▶ **\$15.90**

10



원미생할
수분가득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 FULL OF MOISTURE

히알루론산, 비타민B1, 비타민B6, 아연, 구리, 셀레늄

건강기능식품 1,000mg x 60캡슐(60g)

피부 보습
수분가득 히알루론산
\$19.90 ▶ **\$15.90**

11



원미생할
CMG 프리미엄 보스웰리아
CMG PREMIUM BOSWELLIA

보스웰리아, 마라곤드, 꽃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2, 비타민B6, 아연

건강기능식품 1,000mg x 60캡슐(60g)

관절 건강
CMG 프리미엄 보스웰리아
\$17.90 ▶ **\$14.90**

12



원미생할
홍삼 10ml x 30
KOREAN GINSENG PURE DAILY STICK

100% 국내산 홍삼, 100% 천연, 100% 순수

건강기능식품 100ml x 30캡슐(30g)

홍삼 10ml x 30
한국 홍삼 퓨어 데일리 스틱
\$100.00 ▶ **\$89.00**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